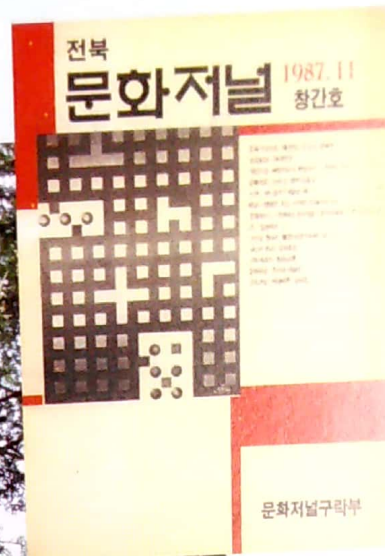


문화저널

전북 문화·예술 종합 정보지

1987년 11월 17일 창간/1996년 9월호 제10권 제9호 통권 제100호
1989년 5월 25일 등록/공보처 등록번호 라-4143/1996년 9월 1일 발행
우-561-0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1 무진빌딩 3층
전화 (0652) 86-4824/ 팩스 (0652) 82-9126/ 전북문화저널사

1996년 9월호 통권 제100호



통권 100호 기념특집

특별좌담

지방화 1년, 지역문화 어디로 가고 있나

지역문화의 쟁점

총론/ 지역문화 세계화와 세계성 확보의 차이
물먹었다는 예향의 문화관료들
문예진흥기금만으로는 안된다
향토는 없고 축제만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예술회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문화적 토대가 위태롭다
대형이벤트에 멎드는 지역문화
근엄한 비평, 껌질 뿐인 발전

영상특집

용담댐, 그 사라져 가는 땅

문화저널, 창간호에서 99호까지

강준만의 문화비평

정태춘의 외로운 투쟁

문화저널의 정기구독자가 되시면

『전북 문화저널』을 아직도 몇군데 책방이나 문화공간을 일부러 둘러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챙겨 읽고 싶으신 대도 깜박 잊으시어 놓치신 일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꾸준히 기획하고 있는 「백제기행」에 참가하고 싶으신데도 주제와 일정을 미리 알지 못해 “아차” 하고 안타까와 하신적은 또 없으신지요.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정기구독을 권합니다. 정기구독자가 되시면 문화저널의 식자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일년 구독료는 삼만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년에 두차례주최하는 문화행사에 관람권을 구입하지 않고도 참여하실 수 있게 초대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금은 선착순으로 제한해야 할 만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백제기행」에도 회원자격으로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혜택들이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기구독은 『전북 문화저널』이 보다 탄실한 모습을 갖추어 이지역의 문화예술을 건강하게 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왕에 이 책의 독자가 되시기로 했다면 미루시지 말고 지금 바로 『문화저널』에 전화 한통화만 해주시시오.

구독요금은 신청한 첫달분을 받으신 후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를 사 용하시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시거나 아래 안내해 드리는 은행의 구좌번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북문화저널”의 정기 구독자 여러분은 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건강하게 꾸려가는 바로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 국민은행 501-01-0484-629 문화저널
- 전북은행 507-13-0000663 윤덕향
- 우편대체 400010-31-9047937 진호
- 우체국 400010-0337980 문화저널

전북문화저널사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1 우진빌딩 3층
전화 86-4824 팩스 82-9126

문화저널

1996년 9월호 통권 제100호

문화저널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 발행·편집인 천이두
- 운영위원 유휴열, 윤덕향, 이동엽, 진 호
- 편집위원 최경수, 최동현, 권오표
- 편집위원 이종민, 김은정, 박남준, 정철성, 김정수, 박홍규
- 편집장 원도연
- 기자 김태호, 허옥철

- 전북문화저널사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1 우진빌딩 3층
- 전화 86-4824
- 팩스 82-9126
- 일러스트 박홍규
- 편집디자인 김진순
- 제작 창원정판사

값 2,500원

〈문화저널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저널

차례

1996년 9월호 통권 제100호

"문화저널은 문화에 대한 따뜻한 인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집

지방화 1년, 지역문화 어디로 가고 있나

'세계 속으로 뛰어라' 민선자치정부 1년이 바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향한 노정에서 우리는 전북문화의 자긍심을 찾고 싶어한다. 그러나 지금 전북 문화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그러니 마냥 뒷짐지고 앉아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도대체 전북의 문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왜 이 지경에 처해있는지.

문화저널 100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지설명

「문화저널」이 100호를 맞았다.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음을 우리는 안다. 아름답고 한 그루 나무의 웅혼함으로 오래 오래 독자앞에 설 것이다. 사진/오병권 기자 (전북일보 사진부)

- 10 축하그림
- 12 문화칼럼 의욕이 넘치면 형식이 타락한다 · 홍석영
- 16 문화저널 창간 100호를 축하하며
깨어있는 정신으로 파종한 건강한 문화의 생명력 · 한승현
제 뿌리와 땅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 · 김종철
건강한 문화형성을 위한 교정제 · 박명규
'호남문화'의 구심점으로 서라 · 문순태
민중삶과 함께하는 문명전환의 씨앗 · 채희완
진정한 '홀로서기'의 길잡이 · 임진택
인쪽 문화를 살려 바깥 문화를 성찰하는 일 · 정과리
- 23 시 어느 게으른 사람의 농사법 · 박형진
- 24 문화가

30 특집1 지방화 1년, 지역문화 어디로 가고 있나

특별좌담/김용택·김은정·박병도·송만규·유기하·윤덕향·이규현·이종민

46 특집2 지역문화의 쟁점

총론 / 지역문화 세계화와 세계성 확보의 차이 · 김은정

물먹었다는 예향의 문화관료들 · 임석규

문예진흥기금만으로는 안된다 · 한성천

향토는 없고 축제만 있다 · 이홍래

문화예술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김명성

예술회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 김수돈

문화적 토대가 위태롭다 · 전성진

대형이벤트에 멎드는 지역문화 · 김정수

근엄한 비평, 껌질 뿐인 발전 · 원도연

66 문화저널, 창간호부터 99호까지

문화저널이 지향했던 그 '따뜻한 사랑과 인식' · 편집부

72 웅기장이 이현배의 이야기 쏜쟁이의 곰발바닥과 무국

73 영상특집

웅담댐, 그 사라져 가는 땅 사진 · 이홍재 / 글 · 박남준

- 78 새로찾는 전북미술사 33 우리화가들에 의해 교육 이루어진 산실 · 이철량
- 81 PC칼럼 컴퓨~러, 아세요? · 최재호
- 82 여성과 문화 농민의 사랑과 농민의 희망을 담았다 · 원도연
- 86 강준만의 문화비평 정태춘의 외로운 투쟁 · 강준만
- 88 물고기 생태학 아직도 보호할 수 있는 종이 남아있다 · 이완옥
- 90 노동은의 근대음악사 음악의 생활화를 실현한 두레의 사회 · 노동은
- 93 박홍규의 만평
- 94 제50회 백제기행 지리지 냇가에는 물고기가 산다 · 이혜경
- 99 음반감상 뿌리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 문운걸
- 100 서평
-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꿈 - 윤정모 『나비의 꿈』 · 강도은
- 조선 후기 문화사 이해의 길라잡이 - 이태호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 최선주
- 104 생활 속의 소비자문제 다단계 판매시장, 외줄타는 소비자 · 김보금

106 영화평론가들이 꼽은 나의 영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떠나라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 이효인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 온 영화 <시네마 시네마> · 김지석

'그 드물다는 굴고 정한 갈매나무' 와 같은 영화 <축제>와 <꽃잎> · 이정하

- 111 건강교실 영구적 치료효과를 위해 · 정영원
- 112 콩트 어둡고 괴로워라 · 윤홍길
- 116 창작극회 중국공연기 중국의 친절과 관심, 공감의 무대를 만나다 · 광병창
- 118 특별기고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
- 122 문화시평
- 다시보면 달리 보이는 문학의 너비 - 여름시인학교의 추억 · 정철성
- 절망의 변주언어 - 극단 황토 <한놈 두놈 뽕구타고> · 김길수
- 무더웠던 여름, 창작열기로 식혔다 - 전북문화예술계 여름나기 · 김태호
- 130 문화정보
- 146 독자와 함께
- 148 저널이 본다
-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원동력 - 문화저널 100호를 맞으며 · 천이두



●영상특집

물이 차도 만나간다

세기를 뛰어넘는 대역사가 진행중에 있다. 용담댐 건설의 현장이 그곳이다. 21세기에는 사라지고 없을 용담댐의 수몰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 땅과 사람들을 만났다.

●영화평론가들이 꼽은 나의 영화

부산에서는 국제영화제의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영화의 새 장을 열고있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저널의 영화사 강좌에 기꺼이 참여해 주었던 김지석 교수는 최초의 발의자이자 가장 중요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영화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그의 감동적인 열성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김지석 교수를 비롯한 세 명의 영화평론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고 문화저널 100호에 떴다.

최근에 공업 우선 정책과 지역편중개발정책으로 우리가 사는 전라북도는 개발이 늦어져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공화국의 온산공단, 울산, 포항 등의 공단건설이 동해안의 소하천들을, 대구, 부산, 서울, 경기의 개발이 낙동강과 한강수역 등을 지금과 같이 폐허로 만든 것을 우리는 보아 왔다. 최근에 지역적 배려로 개발이 시작된 평양과 여천공단에서는 얼마되지 않아 모든 주민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전라북도가 공업화되지 않기를 원한다. 대규모 토목 공사는 더욱 그렇다. 새만금 간척공사, 군장산업단지, 용담댐 이러한 토목공사가 계속되면 이전에 개발이 국토를 망친 실패를 이곳 전북에서도 재연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물고기가 사는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민물고기는 189종이며, 이 중에는 49종이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유종인데, 전북의 민물고기는 최소한 130여종이 서식하고 있고 고유종도 35종이나 분포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담수어가 전북에 서식하는가? 이것은 지리적인 원

물고기 생태학

아직도 보호할 수 있는 종이 남아 있다

전북의 민물고기

글/이완옥 청평내수면 연구소 연구원

인과 뒤떨어진(?) 경제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지리적 원인을 보면, 전북의 동은 산악지대이며, 서는 평야지대로 되어 있어 서식처가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 중에 한강을 제외하고 낙동강과 섬진강의 중상류와 금강의 상류와 하류가 모두 이곳을 지나는데, 강 중상류에는 많은 종의 어류가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또한 우리 땅의 중앙을 지나고, 변산반도에 백천이나 고창지방에 인천강 등의 소하천이 다양한 강의 모습과 종류로 이곳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강에서 사는 담수어류가 풍부한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중심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하천의 파괴와 오염이 적어서 종이 다양하다. 일부 지역에서 하천의 개수와 수질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댐이 축조되고 강이 오염되면서 중요한 몇몇 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금강하구둑을 막아 이곳에서 많이 살던 황복과 젓뱅어, 철갑상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전에 살던 진상품인 종어는 이제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만경강의 고산천과 전주천에서도 10년 전만 하여도 흔하던 통사리, 감돌고기, 독중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 많던 쉬리나 참중고기, 중고기, 줄납자루, 칼납자루도 이제는 살아 있는 지조차 의심스

쉽다. 금강 상류에 살던 어름치, 돌상어, 꾸구리, 금강모치, 감돌고기는 무주리조트, 용담
 댐으로 서식처까지 잃어버리고 있다. 소하천인 변산반도의 백천에서도 10년 전에 조사할
 때 흔하던 부안종개와 민물검정망둑, 미유기가 이제는 민물검정망둑은 전멸하고, 우점종
 이던 부안종개는 희소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아직도
 보호할 수 있는 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이번 환경부 지정 특정
 야생동식물 24종 중에 철갑상어, 임실납자루, 어름치, 감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금강모
 치(금강), 새코미꾸리, 부안종개, 꼬치동자개, 통사리 등 11종이 우리 전북에 살고 있고
 임실납자루와 부안종개 등도 다른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종인 것이다. 이러한 민물고

기는 우리가 우선은 불편하더라
 도 감수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연선진지역으로 미래에는 가
 장 앞서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나라 중에 최근
 까지 가장 낙후되었다는 강원도
 가 최근에는 주목받는 지역이
 며,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
 가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다. 인간은 절대 자연을 지배할
 수가 없다고 믿는다. "유행처럼
 너도나도 자연보호와 환경보전



그림1.
 섬진강 중상류로 20여종 이상의
 담수어류가 살고 있으며,
 이중에 절반은 고유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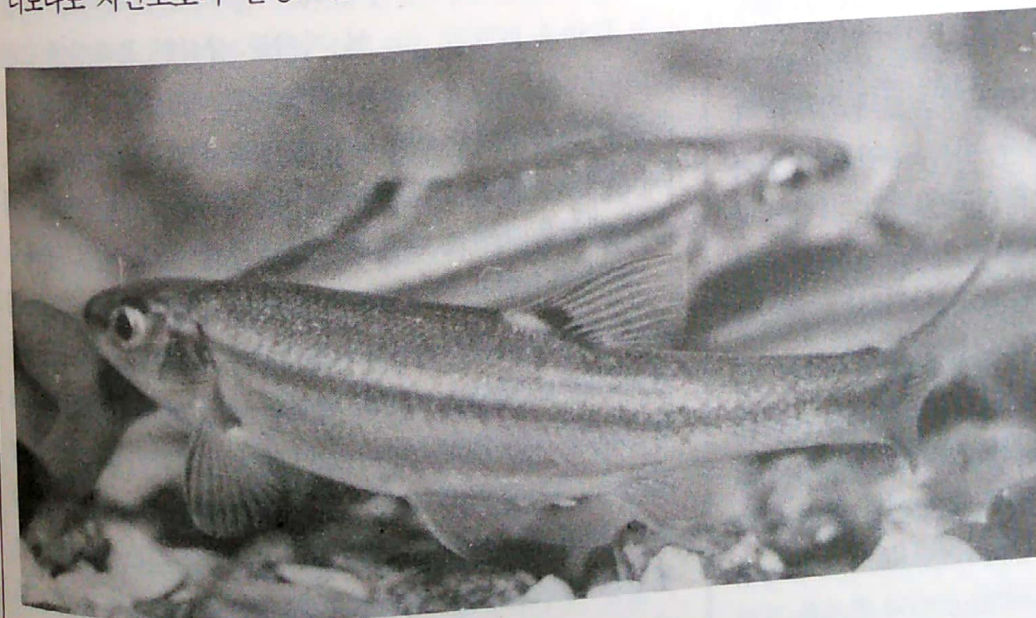


그림2.
 금강모치 *Phoxinus
 kumgangensis* Uchida
 우리 나라의 금강의
 무주구천동과 한강 최상류 수역
 에만 살고 있는 고유종으로
 작은 수서곤충이나 갑각류를
 먹고사는 10cm내외의
 소형 담수어지만 최근에는
 금강의 것은 점멸위기에
 처하여 있다.

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누가 지켜야 하는지는 모르는 듯하
 다. 그나마 아직 우리 곁에 이처럼 지킬만한 자연이 남아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어
 느 원로생물학자의 말이 너무도 마음에 와 닿는다. **문화**